

역사교육을 통한 말레이시아 사회통합의 과제 및 한계: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경합을 중심으로*

조영목** · 서은숙***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역사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본다.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국가로서 말레이인, 중국계 화인, 인도계 이민자 외에도 수십 개의 소수 민족공동체 등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다양성 수용을 통해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 역사교육도 말레이시아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서, ‘말레이시아 국민’으로서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 역사 과목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시·공간적으로 폭넓게 다루며,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의 삶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만든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시작부터 숭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이 처음 도입된 영국 식민 지배 시절과 독립 직후 역사교육의 내용은 ‘유럽 중심적(Europe-centric)’ 식민주의 사학의 영향으로 인종적 정의 및 평등의 논란이 나타났다. 교육과정이 개정된 1978년 이후 역사교육은 말레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C2A04092485)

** 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주저자,
youngmook531@hanmail.net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국제다문화학과(협동) 교수,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소장, 교신저자, ses87@dongguk.edu

이인을 우대하는 부미푸트라 정책(Bumiputra Policy)의 영향으로 말레이인 중심의 역사를 교육하며, 화인 및 인도인 이민자들의 역사적 아픔과 말레이시아 발전의 공로를 교육과정에서 빠뜨렸다. 이후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교육 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비판을 일부 반영하고 다문화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모색했지만,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말레이시아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하지만, 말레이인을 우대하는 국가 정책의 존재는 역사교육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역사교육을 통한 말레이시아의 완전한 사회통합에는 한계가 나타난다.

주제어: 말레이시아, 다문화사회, 다문화 교육, 역사교육,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정체성

I. 서론

역사교육은 학습자 본인의 과거, 그리고 과거 사람들과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 서로 연결된 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정체성 형성’이다. 역사교육을 통해 국가의 기원인 역사적 전환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학습자 본인과 연결 하여 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충성심을 느끼며 정체성을 확립한다(Barton&Levstik 2004: 44).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에서도 역사교육은 똑같은 목적으로 도입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민족 집단이 공존하는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중등 교육과정에서 그들의 역사를 어떠한 관점과 특징을 가지고 교육하는지 살펴본다.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의 변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독립 직후까지는 유럽 중심적(Europe-centric) 사관이 반영된 역사교육이 비판받았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말레이 중심적(Malay-centric) 사관이 반영되어 개정된 역사교육이 논란이 되었다

(Hussin 2008: 452-460; Cheah 2003). 2016년 Form 1¹⁾의 역사 교과서를 시작으로 2020년 Form 5²⁾의 역사 교과서까지 개정된 오늘날의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은 여전히 말레이 및 이슬람 중심적(Malay and Islam-centric)이라는 특징을 비판받는다(Santhiram 2021: 11). 다문화 공존을 지향하지만, 특정 민족 집단을 우대하는 국가 정책이 역사 교육에도 반영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역사교육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의 교육은 학생 개인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속 시키는 다문화적 특징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말레이인 및 이슬람 중심의 교육 방향에 점진적으로 융화되는 동화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초등교육을 수학하는 아동 시기보다 중등교육을 수학하는 청소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2세 이후의 청소년기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학교에서의 교과과정이나 교사, 동급생과의 동일시 및 과외 활동 등을 통해서 가정에서 형성된 감정적 내용을 정체성에 인지적이고 평가적인 내용들이 보충되면서 정체성이 확립된다(유혜자 2006: 16; 임규섭 2023: 82). 아동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국가가 의도하고 설계한 역사교육은 청년세대의 국가 정체성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모든 과정은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임규섭 2023: 82-83). 따라서 본 연구는 중등교육의 역사 과정에 집중한다.

지금까지 나온 말레이시아의 교육과정 연구는 말레이시아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특징이나 고등교육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양승윤 2008; 황인원 외 2012). 말레이시아 역사 교육과정의 연구는 주로 식민지 시절부터 오늘날까지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Blackburn&Wu 2019; Santhiram 2021; Ting 2013). 일부 말레이시아

1) 한국의 중학교 1학년 해당
2)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해당

역사교육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 역사 교과서의 특징 혹은 문제점을 비판한다(Cheah 2003; Hussin 2008; Santhiram 1997; Soda 2001; Wong 2023). 하지만 대다수의 말레이시아 중등 역사교육 연구가 역대 역사 교육과정의 특징을 시기에 따라 나열하거나, 과거 사용된 역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거나, 역대 역사 교과서의 특정 내용만 설명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출간되어 현재 말레이시아 중등 과정(Form 1에서 Form 5)에서 사용 중인 역사 교과서 <Buku Teks Sejarah Tingkatan 1 KSSM> 에서 <Buku Teks Sejarah Tingkatan 5 KSSM>까지 총 다섯 권을 참고하여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에 반영된 말레이인 중심의 동화주의적 혹은 다문화적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이 사회통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말레이시아 중등 역사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애국심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역사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은 비말레이인들인 화인과 인도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며 하나의 ‘말레이시아 국민’으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중등 과정 역사교육의 주된 내용인 말레이인 중심의 역사관을 비말레이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사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 다문화 수용이 아닌 말레이인 중심의 동화주의적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말레이시아 중등 과정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여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의 가진 특징과 한계, 지향점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II. 말레이시아 중등 역사교육의 변천

1. 말레이시아의 민족 구성 및 교육과정

오늘날 다양한 민족 집단이 공존하는 말레이시아의 민족 구성은 말레이인을 포함한 부미푸트라³⁾(65%), 중국계 화인⁴⁾(21%), 인도계 이민자⁵⁾(6%), 기타 민족 집단(8%)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Malaysia 2023: 10).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민족 구성은 역사 속에서 추적해야 한다. 과거부터 소수의 아랍인, 인도인, 중국인 유럽인 상인들은 말레이반도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인 말라카(Malacca)에 정착하며 무역 활동에 종사했고, 영국의 식민 지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부터 징세 청부(Revenue Farming)나 대규모 경작(Plantations)에 필요한 노동 인력이 중국과 인도에서 대규모 유입되며 다문화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당시 영국 식민정부는 말레이인의 가난과 낙후성을 그들의 게으른 속성으로 오판하며 노동 인력으로 고려하지 않고, 중국인과 인도인을 고무나무 플랜테이션과 주석광산 개발에 적합한 인력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식민정부가 그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결과,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사회가 형성되었다(소병국 2020: 191, 213-214). 근대 사회에서 이민은 세계사적 현상이었고, 말레이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말레이시아⁶⁾에서는 식민시대 및 일

3) 부미푸트라(Bumiputera)는 ‘땅의 자손’을 의미하며, 말레이인과 사바(Sabah)주와 사라왁(Sarawak)주의 원주민을 일컫는 용어다.

4) 화교(華僑)는 중국 본토 외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계 사람을 의미하나 법률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가진 공민이며, 화인(華人)과 화예(華裔)는 현지 국적을 취득한 3세대 혹은 5세대 이상이 지난 중국계 이주민. 본 연구에서는 화인으로 통칭.

5) 인도계 말레이시아인은 대부분 타밀족 출신이며, 고무 농장 노동자로 20세기 초에 정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계 이주민으로 통칭.

6) 1957년 말레이반도 아홉 개의 토후국과 페낭·말라카 두 직할 식민지가 통합하여

본 점령기 시절부터 지속된 민족 간 갈등이 반복되었다. 민족 간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었고, 새롭게 독립한 말레이시아에서는 각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계없이 ‘말레이시아 국민으로서 통합된 정체성 형성이 시급했다. 물론, 민족 갈등 해결에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독립 과정에서 말레이인과 화인 정치 엘리트들은 정치적 공존을 선택했다. 말레이인이 헌법상 우선권을 인정받는 대신, 중국계 화인과 인도계 이주민은 말레이시아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말레이인의 종교인 이슬람이 국교의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비말레이인⁷⁾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레이인들은 비말레이인들과 같은 국민의 자격으로 함께 거주하기를 동의하며 종족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 비말레이인들도 자신들의 시민권을 위해 말레이인들의 우위와 특권을 허용했다 (양승윤 2008: 100-101).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민족 구성 및 정치 상황은 고유의 교육제도가 확립되는 원인이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근대교육은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 이중적 정책과제를 기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인도와 중국에서 대량의 이주민이 말레이반도로 유입되었고, 이는 식민지 교육 정책의 핵심적인 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국 식민지 교육의 주요 목표는 종족별로 이중적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영국 식민정부는 말레이 엘리트 집단을 식민지 행정과 수출 경제를 담당하는 소수의 고급 인력으로 육성시킬 계획이 있었던 반면, 말레이계 일반 대중에게는 식민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 세력의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적인 초등교육에 한정되는 등,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국계 화인과 인도계의

영국에서 독립하여 말라야 연방(Federation of Malaya)을 구성했다. 1963년에는 기존의 말라야 연방에 사바, 사라왁, 싱가포르가 포함되어 말레이시아(Malaysia)를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로 통칭.

7) 본 연구에서는 말레이인을 제외한 민족 집단을 모두 통틀어 비말레이인으로 통칭.

경우 식민정부의 제한적인 지원으로 인해 종족 집단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황인원 외 2012: 198-199). 이들 비말레이계 집단은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집단 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자의 문화적 뿌리를 나름의 방식으로 교육했다.

1957년 신생국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며 말레이시아 교육과정 표준화와 통합을 위한 새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교육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의 교육과정 수립 계획은 독립 1년 전인 1956년 압둘 라작(Tun Abdul Razak)⁸⁾의 주도 하에 교육 위원회(Education Committee)가 발족하며 추진되었다. 라작과 교육 위원회는 라작 리포트(Razak Report)를 발표했는데, 이는 말레이인이 선호하는 바네스 리포트(Barnes Report)와 화인과 인도인이 선호하는 펜-우 보고서(Fenn-Wu Report)의 타협안이었다(Santhiram 2021: 37-39). 라작은 모든 학교에서 말라야(말레이시아) 고유의 교육과정을 표준화 및 확립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생 개인의 문화적 배경 또는 언어와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사회통합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다(Malaya 1956: 3).

하지만 1969년 말레이인과 화인 사이에 발생한 ‘인종 분류’는 말레이시아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1969년 총선 결과를 놓고 야당의 선전에 기뻐한 중국계 화인들이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시내에서 5월 13일에 승리 자축 행진을 벌이자, 당시 집권 여당인 UMNO⁹⁾를 지지하던 말레이인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 사태는 결국 쿠알라룸푸르와 인근 지역에서 민족 집단 간 유혈 충돌로 나타나 4일간 약 200명이 사망했다. 비록 사태는 신속하게 진압

8) 말레이시아의 초대 부총리 및 2대 총리 역임. 말레이시아 6대 총리인 나집 라작(Najib Razak)은 그의 아들이다.

9) 통일 말레이 국민 조직(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 1957년부터 2018년까지 말레이시아의 총리를 배출하며 장기 집권한 정당

되었지만, 당시 말레이시아의 사회통합 정책 이면에 뿌리 깊은 민족 갈등과 반목이 숨어있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소병국 2020: 319). 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민족 간의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하는 방법으로 말레이인과 토착 원주민들을 우대하는 부미푸트라(Bumiputra)정책을 내놓게 되었다. 식민 통치 이래 화인과 인도계 등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에 의해 경제 분야와 전문 직종이 점유 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분야에 말레이인 및 원주민의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교육정책에 맞추어졌다. 따라서 말레이인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설정되었다(양승운 2008: 115). 말레이인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부미푸트라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회통합이다. 경제적 약자인 말레이계 학생을 중심으로 주요 이주 배경 학생인 중국계 화인과 인도계를 통합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이슬람교도인 말레이계 학생들이 이슬람 종교 교육을 받는 동안, 비말레이계 학생들은 도덕 과목을 학습한다. 따라서 이슬람 교육은 말레이시아의 국가정체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보수적 성향이 강한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다문화화를 바탕으로 세계화 교육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교육에서는 ‘민족’ 개념보다 ‘국민,’ 또는 ‘국가’의 개념이 더 많이 사용되며, 조화를 통한 통합된 국가정체성 형성을 도덕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국민통합의 대상인 다종족을 총체적으로 언급하기 위해 민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양승운 2008: 102).

말레이시아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Primary School) 6년,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5년(Form 1-5)에 이어 4년제 정규 대학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등학교까지 학습 언어는 국어인 말레이어와 영어를 사용하나, 중국계 화인이나 인도계 국민을 위한 민족학교에서

는 중국어와 타밀어를 추가로 학습한다. 국어인 말레이어 학습은 중등학교 전 과정에서 필수적이다(양승운 2008: 93). 또한, 말레이시아의 교과서 정책과 교육 시스템은 학교의 자율성이 거의 없는 고도로 중앙 집중적이기 때문에 교과서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Smart & Shanti 2018: 22).

2. 유럽 중심적 역사교육의 시행: 1930-1978

말레이시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30년대이다. 근대교육의 대표적인 과목 중 하나가 역사였다. 식민지 치하 역사교육의 목적은 영국 제국에 충성하는 구성원 육성에 있었다(Blackburn & Wu 2019: 42).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듯, 당시 식민지 공립학교 역사교육의 주요 내용은 대영제국(British Empire)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한 영국사였다. 말레이반도의 역사도 가르쳤지만, 영국사에 비하면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Hussin 2008: 452). 말레이반도 부분의 교육 내용도 영국인 프랜시스 라이트(Francis Light)와 스탬퍼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각각 페낭과 싱가포르의 식민화를 주도하는 내용이었다. 유럽인들이 말레이반도에 오기 전의 역사는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Santhiram 2021: 46-48).

독립 이후 역사교육은 약간의 내용 수정을 거쳤지만 1970년대까지는 식민지 시절 활용되던 유럽 중심적(Europe-centric) 역사교육과 큰 차이가 없었다(Hussin 2008: 453). 중등 역사 교육과정이 독립국 말레이시아에 처음 시작된 것은 1959년이다. 먼저 중등 과정 첫해인 Form 1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은 세계 주요 문명과 종교(이슬람, 기독교)였다. Form 2의 경우 다섯 단원으로 나누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확산,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의 세력 확장,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교류, 유럽인들의 항해, 유럽 세력의 아시아 식민화가 교과 내용이었다. Form 3는 산업 혁명, 프랑스혁명, 세계 대전, 근현대 아시아 정치사를 다루었다. Form 4와 5는 영국 제국사와 말레이반도의 역사(1400년부터 1945년까지)가 교과 내용이었다(Santhiram 2021: 53).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와 마찬가지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산하 시험 출제기관(Cambridge Local Examinations Board)에서 출제하는 중등 과정 시험이 국가시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Hussin 2008: 452). 1963년에는 사바(Sabah)와 사라왁(Sarawak)이 말레이시아 연방에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의 역사도 교육 내용에 추가되었다(Santhiram 2021: 55).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 위원회도 그들의 환경에 알맞은 교육제도 수립을 준비했으나 현실은 식민 지배국의 제도를 버릴 수 없었다. 따라서 중등 과정 시험의 통과를 위해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에서 ‘영국사’ 부분이 여전히 일정 부분 차지했다. ‘세계사’와 ‘국사’로 나누지 않은 말레이시아의 통합된 역사교육은 신생 독립국의 현실이 반영되듯 광범위한 교과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영토가 확장되며 역사교육의 주요 내용이 1966년 새로 개정되었으나, 인종 분규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역사 과목을 Form 5까지 의무 교육으로 가르치고, 사회통합을 위한 말레이인 중심의 역사로 교육 내용을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말레이인들이 말레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서양인들의 역사적 잣대로 생긴 편견으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아시아 중심적(Asia-centric)’ 또는 ‘말레이시아 중심적(Malaysia-centric)’ 역사를 다시 연구할 필요성이 나타났다(Blackburn&Wu 2019: 113-114). 물론 일각에서는 말레이인 중심의 지나친 역사적 서술을 우려했다. 교육 내용이 큰 틀에서는 영국 식민

지 시절 관련 내용은 이전의 교육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말레이인들의 당시 역사적 기여도 내용만 지나치게 추가한 수준이었다(Cheah 2003: 236). 결국 1969년 인종 분류는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교육과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미푸트라 정책(Bumiputra Policy)은 말레이인 엘리트 육성을 목표로 했다. 역사교육의 내용도 비말레이인들의 역사적 공로보다 말레이인들의 정통성과 업적에 더 집중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을 암시했다.

3. 말레이 중심적 역사교육으로 전환: 1978-2016

1978년 개정된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이전과 비교하면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 말레이 사회의 기원을 말레이시아 역사의 시작으로 서술했고,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말레이시아에서 비말레이인들이 말레이시아 발전에 이바지한 내용이 빠져 비판이 나타났다. 그나마 비말레이인 민족 집단도 말레이시아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언급되는 형식적인 문구를 추가하는 수준이었다. 일부 말레이인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사회는 영국 식민 시절의 유산인 만큼 말레이인들의 역사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Blackburn&Wu 2019). 1984년 개정된 Form 2 역사 교과서에서도 지적이 나타났는데 식민지 시절부터 나타난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특정 민족 집단이 특정 직업만 가진 것으로 서술했다. 예를 들면, 인도인은 고무 농장 노동, 화인은 상업, 말레이인은 소작농에만 종사한 것처럼 묘사되었다(Cheah 2003: 237). 당시 Form 2 역사 교과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 인도계 이주민과 화인의 말레이반도 이주 과정이 생략되어 비판받았다. 말레이인들의 역사적 공로를 그동안 교육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교과서에서는 당연

히 가르쳐야 하지만, 화인과 인도인 역시 말레이시아의 독립 및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들의 역사적 헌신을 교육 내용에서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Santhiram 1999: 126). 식민지 시절, 각 민족 집단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특정 직종에 종사했지만, 각 민족 집단 내에서도 분명 다양한 직업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말레이시아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부분도 역사교육에서 공평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1990년대 접어들며 과거에 제기된 일부 비판을 반영하여 내용을 개정했지만,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 1992년에 개정된 역사 교육과정에서는 말라카 왕국(Malacca Sultanate)이 존재했던 15세기부터 영국의 식민 지배 기간인 19세기까지 다루었으며, 화인 및 인도인 노동자들의 말레이반도 대규모 이주 과정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서술했으며,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일본 점령기(1942년-1945년)를 포함했다. 다만, 역사교육에서 일본 점령기를 설명할 때, 화인들이 일본 군정에 살해되고 박해받던 내용은 제외하고 오히려 일본 군정과 말레이 민족주의자들 간 협력이 말레이시아 독립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고 서술했다(Cheah 2003: 249). 당시 일본과 경제협력을 모색하던 말레이시아의 입장은 굳이 일본을 자신들의 역사교육에서 악역으로 묘사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¹⁰⁾

2000년에 개정된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여전히 비말레이인들에게 논란이 되었다. 당시 Form 4¹¹⁾ 역사 교과서는 말레이반도의 문명화 과정에서 이슬람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힌두교, 불교, 도교 등 타 종교가 말레이반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간략하게 몇 문장

10) 1980년대부터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한국 및 일본의 경제발전을 배우자는 기치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했다.

11)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해당

언급하는 수준으로 서술되었다. 2006년 말레이시아 하원의원인 로 생콕(Loh Seng Kok,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 소속)은 Form 4 역사 교과서의 이슬람 문명화 부분을 언급하며, 비말레이계의 문화와 종교의식도 교과 과정에 포함하여 젊은 세대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생콕은 말레이시아의 모든 유산과 모든 민족 집단이 말레이시아를 위해 공헌한 점을 역사교육에서 충분히 가르칠 것을 요구했다(Blackburn&Wu 2019: 127-128).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중등 과정 역사교육은 약 70년 가까이 변천 과정을 겪었다. 1957년 독립 후, 말레이시아 고유의 교육과정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 시절 교육과정을 일시적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1969년 인종 분규를 겪으며 도입된 ‘부미푸트라 정책’은 ‘말레이인 중심의 말레이시아 역사’로 개편되는 원인이 되어 비말레이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역사교육이 개정될 때마다 이전의 비판을 반영하는 듯 보였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적 상황과 교육정책은 항상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Ⅲ. 말레이 중심적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역사교육의 특징: 2017년 개정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에서 주장하던 통합은 말레이인 중심의 동화주의적 통합이었기 때문에 비말레이계로부터 반발이 터져 나왔다. 역사교육의 내용이 일부 구성원을 배제하며 국가 내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이다(송승원 2014: 65). 이는 비말레이인 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의 과거에 대해 자유로운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역사교육에 대한 개정 요구는 21세기에도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에는 시민

단체인 KemSMS (Kempen Sejarah Malaysia Sebenar, 올바른 말레이시아 역사 캠페인)가 발족하여 역사교육의 개정 및 오랑 아슬리(Orang Asli)¹²⁾에 대한 교과서 속 오류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The Star 2012). 마침 2017년에 말레이시아의 교육과정과 역사교육이 동시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역사교육이 과연 비판을 수용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말레이인 중심의 역사교육을 고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 단체의 요구와 별개로, 2013년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새로운 국가 교육 청사진 개발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교육 시스템을 국제 표준 수준까지 발전시킬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교육 계획 2013-2025’(Malaysia Education Blueprint 2013-2025, 이하 MEB 2013-2025)를 발표했다. 이 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통합(Unity)이다. 계획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인생의 적지 않은 시간을 학교에서 함께 보내며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가능성에 주목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종교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만큼 사회통합의 기초를 다지는 기회로 보았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가 ‘국가정체성’ 형성이다. 민족,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 없이 말레이시아인임을 자랑스럽게 인식하게 하려면 모든 학생이 말레이시아의 역사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alaysia 2013). 다문화 국가의 경우 인종적 혹은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일체감이나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 집단의 인정에 기초한

12) 말레이반도의 원주민 부족의 총칭이다. 주로 내륙의 산지나 우림 정글 지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말레이시아 인구의 0.7%를 차지하며, 말레이시아에서 법적으로 말레이인처럼 부미푸트라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문화 국가는 사회의 결속과 공동의 문화를 통해 과편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Raz 1995: 183-188; 변중헌 2020: 241).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와 일본 점령기 시절부터 나타난 민족 갈등으로 인해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독립 이후에도 지속된 극심한 민족 갈등은 1969년 인종 분류로 나타났다. 민족 갈등은 국가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생존을 위협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통된 애국심을 고취 시킬 목적으로 역사교육을 강조했다.

‘MEB 2013-2025’에는 중등 과정의 개정안도 포함되었다. 1989년부터 도입된 ‘통합 중등 교육과정(KBSM, Kurikulum Bersepadu Sekolah Menengah)’은 ‘MEB 2013-2025’의 결과로 2017년에 ‘표준 중등 교육과정(KSSM, Kurikulum Standard Sekolah Menengah)’으로 개편되었다. 새 교육과정은 창의적 사고, 혁신, 문제 해결 및 리더십과 같은 균형 잡힌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이 갖추는 것을 목표로 개정되었다(Malay Mail 2016). 각 과목의 교과 과정 및 평가 표준 문서(Dokumen Standard Kurikulum dan Pentaksiran Kurikulum Standard Sekolah Menengah, 이하 DSKP-KSSM)도 같이 발간되어 각 과목의 특징, 방향성 등을 설명할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따라서 ‘MEB 2013-2025’와 개정된 KSSM은 같은 해에 자연스럽게 역사교육의 개정으로 나타났다. 중등 과정 역사교육의 개정으로 인해 새 교과서(Buku Teks Sejarah Tingkatan 1-5 KSSM)와 DSKP-KSSM-Sejarah(역사과목)도 동시에 발표되었다. DSKP-KSSM-Sejarah에 따르면 교육 개정을 통해 중등 과정 역사교육의 명확한 틀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의 국가 교육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Malaysia 2016). 2013년부터 중등 과정 및 SPM(Sijil Pelajaran Malaysia)¹³⁾ 취득에

13) 말레이시아의 국가시험으로 대학 수준에서 교육을 계속하기 전에 현재 말레이시아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국심과 국가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The Star 2010). 역사는 개정된 KSSM의 핵심 과목으로서 교과 내용은 이전과 다르게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공동체와 국가의 삶을 논의하는 연대기 형식을 채택했다(Malaysia 2016).

‘MEB 2013-2025’에서 강조하는 ‘통합’과 ‘국가정체성 형성’은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의 목표다. 다문화사회가 형성된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역사교육의 목표는 비슷하다. 한때 말레이시아 소속이었고 비슷한 민족 집단으로 국가 인구가 구성된 싱가포르의 경우, 특정 집단을 우대하지 않고 이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 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싱가포르인(Singaporean)’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상상’하고, 그들만의 역사관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본다(김중호 2024: 75).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비말레이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사회통합과 국가정체성 형성 과정이 말레이인 중심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역사 교과서의 집필진 18명 중 17명이 말레이인들로 구성되어 특정한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Ranjit 2017: 407). 부미푸트라 정책은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의 토대를 ‘말레이 및 이슬람 중심의 역사관’으로 만들었다.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 집필진의 대부분은 말레이인이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비말레이인 한 명만 추가되었다. 집필진이 거의 말레이인으로 채워졌으므로 2017년에 개정된 역사 교과서의 내용도 ‘말레이 및 이슬람 중심의 역사관’이 지속되었다.

현행 말레이시아 중등 과정 역사교육의 학습 내용은 주제에 의해 석기 시대부터 말레이시아의 국가 형성과 민족 형성까지 연대순으로 나열되었고, 학년별로 학습하는 주제는 아래와 같다¹⁴⁾:

에서 중등학교 마지막 학년(Form 5)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험(SPM)을 치러야 한다.

<표 1> 말레이시아 중등 과정 역사교육의 학년별 주제

학년	주제	목차
Form 1	우리(말레이시아)의 역사와 세계	Chapter 1. 알아가기 Chapter 2. 빙하기 Chapter 3. 선사시대 Chapter 4. 문명 알아가기 Chapter 5. 세계의 초기 문명 Chapter 6. 그리스, 로마 문명의 부상 Chapter 7. 인도, 중국 문명의 부상 Chapter 8. 이슬람 문명과 공헌
Form 2	국가의 유산	Chapter 1. 말레이 정부 Chapter 2. 말레이 사회의 통치 시스템과 경제 활동 Chapter 3. 말레이 왕국의 사회문화 Chapter 4. 말레이 왕국의 종교 및 신앙 Chapter 5. 말라카 술탄국 Chapter 6. 조호 리아우 술탄국 Chapter 7. 파항, 페탁, 트렝가누, 슬랑오르 술탄국 Chapter 8. 크다, 클란탄, 느그리 슴빌란, 프틀리스 정부 Chapter 9. 크다, 클란탄, 느그리 슴빌란, 프틀리스의 유산 Chapter 10. 사라왁과 사바
Form 3	외세의 등장	Chapter 1. 서구 세력의 등장 Chapter 2. 해협 식민지 정부 Chapter 3. 말레이 연합주 정부 Chapter 4. 비말레이 연합주 정부 Chapter 5. 사라왁과 사바의 서구 식민정부 Chapter 6. 경제와 사회에 대한 서구 식민정부의 영향 Chapter 7. 현지 저항세력 Chapter 8. 서구의 압박과 말레이 술탄의 지혜
Form 4	국가 건설	Chapter 1. 국가의 유산 Chapter 2. 민족주의의 부상 Chapter 3. 세계 분쟁과 일본 점령기 Chapter 4. 영국의 귀환 및 권력 이양 시대 Chapter 5. 말레이 연방 1948 Chapter 6. 공산주의의 위협과 비상 선언 Chapter 7. 독립을 위한 노력 Chapter 8. 선거 Chapter 9. 말레이 연방 헌법 1957 Chapter 10. 독립의 희망

14) 각 Unit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 및 주요 학습 질문, 개념 등에 대해서는 하단의 부록 참조.

Form 5	말레이시아와 미래	Chapter 1. 국민 주권 Chapter 2. 연방 헌법 Chapter 3. 입헌 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 Chapter 4. 연방제 Chapter 5. 말레이시아의 결성 Chapter 6. 말레이시아 결성에 대한 위협 Chapter 7. 국가 번영 구축 Chapter 8. 국가 번영 구축 Chapter 9. 말레이시아의 외교정책 Chapter 10. 세계 경제 속 말레이시아의 우수성
--------	-----------	--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Dokumen Standard Kurikulum dan Pentaksiran-Kurikulum Standard Sekolah Menengah-Sejarah Tingkatan 1*. 2016; *Buku Teks Sejarah Tingkatan 1 KSSM*. 2016; *Buku Teks Sejarah Tingkatan 2 KSSM*. 2017; *Buku Teks Sejarah Tingkatan 3 KSSM*. 2018; *Buku Teks Sejarah Tingkatan 4 KSSM*. 2019; *Buku Teks Sejarah Tingkatan 5 KSSM*. 2020.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사용 중인 중등 과정 역사 교과서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도입하였다. 특히, 사진, 그림, 지도 등의 자료가 역사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교과서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Santhiram 2021: 90). 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개정이 내용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각 학년당 교과서에는 생략된 내용과 오류가 분명 존재한다.

우선 Form 1 교과서의 경우, 전반부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빙하기 및 석기 시대를, 후반부에는 세계 주요 문명을 내용에 담았다. 특히 후반부 내용에서는 중국, 인도, 이슬람 문명의 기원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슬람 문명의 경우, 세계사적 업적과 기여를 강조한다(Malaysia 2016). Form 1 역사 교과서의 교육 내용은 기원전 동남아시아와 세계 주요 문명 기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orm 2 교과서부터는 말레이반도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교과서 전반부의 내용은 말레이 세계(Malay World)¹⁵⁾의 주요 왕국인 참파(Champa), 스리비자야(Srivijaya), 마자파히트(Majapahit) 등의

주요 역사를 살펴본다. 이들 왕국의 통치 방식, 무역 활동, 식량 생산 및 재배, 종교를 학습한다. 이 당시는 말레이반도에 이슬람이 전파되기 이전이며, 당시 영향력을 끼친 불교나 힌두교의 특징을 설명한다. 후반부에서는 말라카 왕국 외에 말레이반도 11개 술탄국의 기원 및 이슬람 전파를 다루었다. 모든 말레이 술탄국의 권력자가 말라카 왕국과 혈연인 점을 주목하며, 말레이 민족과 말레이시아의 뿌리가 말라카 왕국에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들 말레이 술탄국이 수용했던 다문화와 화합을 강조하며 오늘날 말레이시아도 과거와 똑같이 다문화 수용을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한다(Malaysia 2017). Form 2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의 뿌리와 다양성을 교육한다. 과거 말레이인들이 해양부 동남아시아에 세운 왕국을 나열하며, 말레이 민족과 연관성을 설명한다. 말라카를 비롯한 다른 술탄왕국들은 다문화에 관대하지만, 말레이인들을 중심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Form 3 교과서는 현재 말레이시아 영토에 속하는 말레이반도, 사바, 사라왁이 유럽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과정과 독립을 위해 저항하는 사실을 가르친다. 15세기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략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설명하며, 말레이반도를 놓고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벌어진 경쟁을 다룬다. 이후 영국에 의해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와 말레이 연합주(Federated Malay States)가 탄생하며 말레이반도에서 영국이 벌이는 경제적 착취 및 각 술탄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며 외세에 의한 고난의 역사를 강조한다. 또한, 주석 및 고무 산업 노동자들이 19세기에 중국과 인도에서 말레이반도로 대규모 유입된 사실을 오늘날 말레이시아 다문화사회의 기원으로 정의했다. 그렇게 유입된 비말레이인들의 후

15) 오늘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가리키며, 대부분의 국가가 말레이어를 사용한다.

손은 오늘날 말레이시아 국민으로서 말레이어와 각 민족 언어도 동시에 사용하는 점을 설명한다(Malaysia 2018). 교과서 초반 말레이반도를 놓고 유럽 제국주의 세력 간 벌어진 쟁탈전을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교과 내용의 주요 비중은 영국이 식민 통치 시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영국의 통치가 술탄에게 부당했음을 묘사하면서도 행정체계가 영국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서술한다.

Form 4 교과서는 이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동남아시아 및 말레이 민족주의, 2차 세계 대전과 일본 점령기, 말라야의 독립 과정을 순서대로 서술한다. Form 4의 학습 주제는 ‘국가 건설’인 만큼 말라카의 역사적 업적을 서술하고, 말레이시아의 뿌리로서 계승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서양에서 건너온 민족주의가 아시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중요한 기폭제로 작용했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말레이 민족주의는 영국의 통치와 일본의 점령에 맞서 말레이시아가 독립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임을 강조한다. 그렇게 형성된 말레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고 주장한다(Malaysia 2019). 특히, 2000년대 비판받던 내용과 다르게, 일본 점령기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죽음의 다리(The Death Railway) 건설에 강제 동원된 동남아시아인 노동자(romusha), 일본 군정의 잔인한 화인 탄압, 화인들이 주축이 된 항일 말라야 국민군(MPAJA: Malayan People's Anti-Japanese Army)의 항일운동을 포함했다. 화인들이 일본 군정에 의해 말레이인들이나 인도계 이주민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실을 명시하고, 같은 구성원이 겪은 아픈 역사를 가르친다. 말레이 민족주의가 국가의 뿌리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구성원의 아픔도 함께 기억하려는 교육을 시도한다.

Form 5 교과서는 ‘국가의 주권’, ‘말레이시아의 형성’, ‘국가의 안녕(the well-being)’, ‘세계 속의 말레이시아’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영국의 식민 지배 이전 군주제를 시행하던

말레이 술탄국의 통치 형태가 말레이시아의 입헌 군주제로 바뀌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후,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 결성,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연방 탈퇴, 민족 갈등과 1969년 인종 분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및 국가 개발 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의 성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정책 순으로 구성되었다(Malaysia 2020). 교과 내용은 사회통합을 강조하지만, 이전 학년 교과서에서 왜 민족 집단 간 갈등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독립국 말레이시아의 민족 갈등을 언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며 화합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민족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현대 말레이시아의 업적이 뛰어난 예술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대부분 말레이인들만 선정해서 소개한다.

말레이시아의 중등 교육과정은 Form 1에서 3까지를 중등 저학년(Lower Secondary), Form 4에서 5까지 중등 고학년(Upper Secondary)으로 분류한다(Ong 2010: 93). 중등 저학년의 역사 교과서는 Form 2를 제외하고, 8개의 단원(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등 고학년의 교과서는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학년 역사 교과서의 초반 내용은 저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더 상세하게 내용을 담고 있다. 저학년 교과서는 세계사와 국사의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고학년 교과서에서는 현대사를 중심으로 헌법,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역사를 SPM 필수 과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 SPM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은 11.91%를 차지해 이들이 역사 과목을 통과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말레이시아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라지 지딘(Mohd Radzi bin Md Jidin)은 역사를 SPM 필수 과목에서 재검토할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부정했다(Malay Mail 2022). 역사교육을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 시키려던 정부의 계획과 달리, 역사 과목은 학생들에게 진학에 방해되는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교육부와 교사들은 학생들이 역사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역사교육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수록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 과목을 시험의 필수 과목에서 제외될 일은 없겠지만 학생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의 입장에서 역사교육은 민족 및 국가정체성 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자산이다(김종호 2024: 75). 현행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은 말레이반도의 다른 스리비자야나 마자파힛보다 말라카 왕국을 역사적 뿌리로 계승해야 할 대상으로 강조한다. Form 5 교과서의 말레이시아 외교를 설명하는 단원에서도 말라카 왕국의 국제관계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슬람교가 처음 말레이반도에 전파된 곳이 말라카 왕국이었고, 현재 말레이시아도 국교가 이슬람교인 만큼 민족적, 종교적 뿌리의 상징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말라카 왕국의 정신을 말레이 민족주의로 계승하여 외세의 지배를 극복하고 독립 국가 건설의 정당성을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Form 1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종족적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여 그들의 문화적 뿌리의 다양성을 배려하면서도 사회통합의 중심은 말레이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과거 역사 교과서와 비교하면 분명 비말레이인들 관련 내용이 보충되었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모양새를 드러낸다. 하지만, 화인과 인도계 이주민들이 말레이시아 역사에 공헌한 점이 분명히 큰 만큼 적어도 Form 4나 5 교과서에 한두 장 정도를 비말레이인 집단의 역사를 할애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

장도 존재한다. 일정 분량으로 비말레이인 집단의 중요성을 가르치면, 모든 말레이시아인은 국가 건설 과정에서 각 집단의 역할과 고유성을 배우고 존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주장하는 ‘진정한 아시아, 말레이시아!(Malaysia, Truly Asia!)’라는 구호는 역사교육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관광 목적으로만 사용된 문구였는지 비판한다(Santhiram 2021: 92).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말레이 및 이슬람 중심의 역사관’은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의 토대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역사교육의 다문화 수용이 높아졌지만, 말레이시아의 뿌리로서 말라카 왕국이 강조되고, 이슬람의 우수성을 부각한다. 따라서 말레이인도, 이슬람교도가 아닌 학생은 역사교육이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인해 소외된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국가정체성 형성이지만,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비말레이인 학생이 동등한 말레이시아 국민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의 개정은 부분적으로 다문화를 수용하는 한계가 나타난다.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의 가장 큰 목표인 사회통합에는 다문화와 말레이 민족주의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한다. 과거 말레이 술탄국의 다문화 수용성, 영국 식민지 시절 대거 유입된 화인 및 인도계 이주민, 일본 점령기 당시 화인들의 아픈 역사,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나타난 민족 갈등을 모두 포함하며 민족 간 화합을 강조한다. 또한, 말라카 왕국의 유산을 계승한 말레이 민족주의가 일본 점령기와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를 극복하여 말레이시아의 독립 및 발전으로 나타나는 점을 부각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분명 비말레이인들의 내용을 많이 반영했지만, 말레이인의 자긍심을 지나치게 강조해 비말레이인들이 여전히 말레이시아 역사에서 소외되었다.

IV. 역사교육을 통한 다문화 관점의 확대 및 말레이시아 사회 통합의 한계

195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교육과정의 개정될 때마다 혼란을 반복적으로 겪었지만, 점차 안정을 취해가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 중심의 역사 지식 전달을 넘어 역사적 비판의식을 함양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역사 교과서 서술이 형식적으로나마 시도되고 있다는 점 역시 현행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현행 역사교육 커리큘럼과 교과서는 정부 혹은 말레이인 중심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해 모든 말레이시아인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을 ‘상상의 정치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로 묶어 공동체로 상상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통해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쇄’라는 기술적 요인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같은 신문이나 소설을 읽으며 동료 의식을 형성하고 민족 집단으로 발전했다(Anderson 1983: 15-16).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더라도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지 않으면 민족으로 형성될 수 없다. 그만큼 문화 공유는 민족 집단을 형성하는 강력한 접착제이다(김동노 2012: 380).

말레이시아의 사례처럼, 복수의 민족 집단의 존재로 인해 국가의 과거를 형성한 다양한 문화적 관습은 거의 모든 시기에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민자들이 인구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국가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VanSledright 2008: 111).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과 상생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문화에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와 구성원에 나름 합리적으로 작용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을 육성하기 위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한중 2006: 15).

역사는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역사 과목은 다양한 시각에서 인간의 삶을 시·공간적으로 폭넓게 다루며 해석하고, 과거의 나와 타인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여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학습하도록 가르친다. 학습자들은 역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그리고 평등과 인권,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평화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게 된다. 결국 다문화교육과 역사교육은 목적과 성격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양성, 평등, 평화, 타문화 존중, 소통과 공존 등 서로 주요 가치를 공유한다(곽희정 2017: 6). 역사교육의 대상은 이주 배경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되어야 한다. 즉 대상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어야 한다. 특정인이 아닌 모두를 위한 다문화 역사교육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다문화사회의 진정한 모습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허영훈 2024: 484).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면서도 말레이인 중심의 사회통합을 주장하고, 이러한 특징이 역사교육에도 나타난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역사교육이 비말레이인들의 애국심을 북돋아 사회통합으로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애국심’이다. 애국심은 조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 조국의 번영, 조국에 대한 희생하는 마음으로 구성된 복잡한 집합으로 규정되면서 조국에 대

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정의된다(Nathanson 2002: 114; 방지원 2016: 49; 버츠 2007: 314;). 하지만, 역사교육에서 애국심은 주입식 교육과 맹목적인 충성심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애국심에 대한 강조는 도덕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강조가 정의와 평등과 같은 '애국심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목표'를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Nussbaum 1994). 말레이시아의 사례는 역사 교과서 서술의 구성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애국심과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역사교육의 목표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Ting 2013: 112). 사실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에서 주장하는 애국심은 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모든 말레이시아인이 동의하고 공유하는 애국심이 아닌, 말레이인 중심의 시각에서 형성된 애국심을 호소한다.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말레이인 학생들의 애국심을 진작 시키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고, 특정 집단 중심의 애국심은 학생들 사이에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 역사교육은 어디에서나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교육의 현장 역시 학교 외에 다른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차이와 다름의 이해, 차별과 배제의 지양 등 다문화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소는 모두 다문화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박재영 2016: 31). 하지만, 교육 현장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에 강한 영향을 받는 역사교육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존중을 바탕으로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역사적 사고력 함양이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언급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시험 문제의 방향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부가 진지하게 그런 방향을 목표로 한다면 교사들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개편하여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Ting 2013: 113). 이러한 한계는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인이 우대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은 분열적인 개념인 ‘말레이 우월주의(Ketuanan Melayu)’를 바탕으로 이슬람과 말레이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 치우친 시각의 내용을 교육한다.

말레이인 우대정책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영국 식민정부는 ‘말레이인 우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말레이인을 말레이반도의 주인으로 대우하는 반면, 비말레이인을 일시적인 체류자로 간주했다. 또한, 말레이시아(1963년까지 말라야 연방)가 독립할 당시, 비말레이인 지도자들도 ‘말라야는 말레이인의 나라’라는 말레이인의 역사적인 권한을 불가침적 특권으로 받아들였다(소병국 2020: 191, 316). 이후, 1969년 ‘인종 분규’을 겪으며 말레이인의 특권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었고, 이듬해인 1970년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¹⁶⁾가 집권한 ‘말레이 딜레마’(The Malay Dilemma)에서 말레이인의 특권과 우월주의를 동시에 정당화했다. 마하티르는 말레이인들이 말레이반도의 정당한 주인이자 가장 권위 있는 집단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역사교육도 ‘말레이반도 주인’(말레이인 지칭)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Mahathir 1970: 133-143).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주장과 말레이인을 우대하는 국가 정책이 결합하여 말레이인 중심의 역사관이 역사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말레이 우월주의는 오히려 동화주의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동화주의는 이주민들이 이주국에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과 같이 공적으로 현지 언어를 사용하고 현지 문화를 당연하게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Park&Burgess 1921 : 223-226). 애초 말

16) 말레이시아의 정치인으로 1981년 총리를 맡아 22년 장기 집권했고, 2018년 5월 다시 총리가 되어 세계 최고령 국가 정상 기록을 세웠다. 재직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른바 ‘신흥 중진국’으로 성장했다.

레이시아는 독립과 동시에 말레이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비말레이인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존중하는 교육 계획을 준비했다. 하지만, 1970년대 말레이인의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인의 우월주의가 역사교육의 적용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와 비교하면 말레이시아의 현행 역사교육은 비말레이인 이주민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더 설명하며 다문화주의적 요소가 일부 포함되었으나, 그들의 역할을 여전히 경시하듯 묘사한다. 다문화주의는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하기 위한 일련의 문화적 상대주의로 정의한다(정상준 1995: 81). 하지만, 중등 과정 5년 동안 단 하나의 교과서에서도 화인들이 후추나 타피오카 재배 등, 19세기 말레이반도 상업형 농업의 선구자였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다. 또한, 쿠알라룸푸르 개발에 공헌했던 얍아로이(Yap Ah Roy)¹⁷⁾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인도계 이주민의 경우, 항구, 공항, 공공기관 건물, 도로, 철도, 다리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이 현대 말레이시아 인프라 개발에 기반이 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인도인이 질병, 피로, 영양실조로 인해 목숨을 잃은 중요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는 가르치지 않는다(Ranjit 2017: 407).

역사교육은 ‘공유된 역사의식’ 형성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Kymlicka 2001: 312). 공유된 역사의식은 동료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된 소속감과 ‘우리 중 하나’로서의 상호 정체성이 나타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모든 시민이 ‘우리의 역사’라고 인

17) 쿠알라룸푸르의 3대 화인 지도자(Kapitan Cina)로서 1881년 홍수로 피해를 받은 쿠알라룸푸르를 자신이 운영하던 벽돌공장을 통해 재건했다. 도시와 광산까지의 도로도 건설했다

식할 수 있는 국사(國史)를 쓰는 것은 반드시 말레이시아 민족의 다문화적, 다종교적 현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 교과서 작성 방식과 관련하여 국사를 둘러싼 논쟁은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한 투쟁’과 역사적 인정을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Ting 2013: 114). 비말레이인들의 공헌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 말레이인들의 역사적 업적을 존중하면서 그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역사서술은 저자가 항상 상충되는 기록과 무한한 사건들을 선별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Merry 2009: 383).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역사 기록은 기록자의 사회정치적 관점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색칠되며, 저자가 자신의 해석에 반하는 증거에 대해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역사교육이 포괄적인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민족적 또는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은 역사적 기록이 제시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문제를 살펴볼 때 여러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적 불공정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논란을 피하러 의도적으로 역사를 잘못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그 자체로 불협화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Ting 2013: 114). 논란이 지속되는 현행 중등 과정 역사교육은 2027년에 개정될 예정이다(The Sun 2024). 사실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1978년부터 비슷한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다음 개정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말레이시아가 있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헌신했음을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역사교육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다양성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교육의 개선된 특징을 통해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 형성과 사회통합에 공헌할 수 있다. 하지만, 말레이인을 우대하는 상황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역사교육의 내용은 지금까지 고착되었고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비말레이/비무슬림 학생들의 경우, 역사 과목의 수업 내용이 자신들과 연관 없다고 인식하며 역사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말라카 왕국을 말레이시아의 뿌리이자 정통성으로 강조하는 교육 내용이 서말레이시아(West Malaysia)는 중심부, 동말레이시아(East Malaysia)는 주변부로 묘사하여 비판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에서 이슬람과 말레이 우월주의를 긍정하는 내용은 모든 비말레이인 집단(화인, 인도계 이주민, 오랑 아슬리, 동말레이시아 원주민 기독교도 등)을 소외시킨다. 오늘날의 말레이시아는 더 큰 영토와, 증가한 인구,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지만, 여전히 역사교육은 말레이반도와 말레이인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Ting 2013: 53).

역사교육은 민족주의라는 분열적 의제에 의한 정치적인 추구가 아니라 학문적 추구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학자와 교육관계자들은 역사 교육과정 개편, ‘말레이시아 중심 틀’에 기반한 현행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 검토 및 개선, 엄격한 공로에 따라 다양한 민족의 역사 작가와 전문가를 선발하는 데 시급히 노력해야 한다(Ranjit 2021: 408).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전혀 다루지 못한 분석적 개념들을 어떻게 역사 서술에 적용할지 향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역사교육은 학생들의 마음을 형성하고 민족 정체성과 소속감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문화 국가에서 민족 간 화합과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하다. 국가에 대한 공통된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된 소속감과 정체성은 말레이시아의 미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V. 결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말레이시아는 민족 집단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역사교육도 수단 중 하나다. 역사교육은 캐나다나 싱가포르 같은 다문화 국가에서도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두 국가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던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다문화주의적 특징과 동화주의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 역시 말레이시아의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다. 이전까지 부재했던 말레이시아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독립 직후에는 식민지 시절 교과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다. 말레이인 우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부터 말레이인 중심의 역사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비말레이인들의 역사적 공헌도가 교육과정에서 짧게 언급되었다. 말레이인 중심의 역사교육은 지속되었지만, 비판적 의견을 반영하여 1980년대, 1990년대 들어 일부 개정하였지만, 구성원의 아픈 역사를 외교적 이유로 외면하며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말레이인만 말레이시아의 주인이라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역사교육은 사회통합과 정체성 형성의 목적이 있지만,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이 다문화적 특성보다 동화주의적 특성을 더 반영한 특징이 있다.

현행 말레이시아 중등 과정 역사교육의 특징은 각 학년당 정해진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사와 국사의 구분 없이 세계사 속 말레이시아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orm 1 세계 문명의 내용은 이슬람이 세계에 공헌한 점을 강조한다. 본격적으로 국사를 다루는 내용에서는 말라카 왕국의 정신과 말레이 민족주의를 계승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외세에 저항한 말레이 술탄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찬양하며 묘사한다. 또한, 과거에 가해진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비말레이인

들의 아픔과 업적도 일부 명시한다. 지나치게 강조된 말레이 민족주의는 비말레이인 학생들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화인 및 인도계 이주민의 역사적 헌신 및 공로를 경시하듯 묘사했다. 화인 및 인도계 이주민의 희생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의 인프라적 기반이 형성된 것을 교과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도 동등한 구성원인 만큼, 그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분량이 추가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이 주장하는 애국심을 비말레이인 학생들의 수용 여부도 말레이시아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모든 말레이시아인을 위한 애국심인지, 단순하게 말레이인만을 위한 애국심이 강요되는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결국 말레이인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행동이 역사교육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동화주의적 특징이 나타나는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이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촉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사회통합은 친목 활동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서로 가지고 있던 적대감을 극복하고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 발전에 헌신한 모든 민족 집단의 역사적 공로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 역사교육의 특징은 다문화사회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과정을 충실히 연구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독립 직후 실시한 역사교육에서 여전히 자국민 말레이시아사보다 식민지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영국사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편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지만, 교육과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학생들을 올바른 내용을 교육하는 책임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 주요 구성원의 아픈 역사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1990년대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 점령기 당시 화인들의 아픈 역사를 정치적인 이유로 외면했다.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 국가 주요 구성원인

만큼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 셋째, 말레이인 중심의 민족주의적 사관을 수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말레이인 중심의 내용으로 서술된 말레이시아의 역사교육은 같은 말레이시아의 일원인 비말레이인들의 역사적 공헌을 접할 수 없는 점이 지적되었다. 역사교육을 포함한 ‘MEB 2013-2025’는 모든 말레이시아 학생의 포용성, 다양성 수용, 가치 공유를 강조하지만, 역사교육에서는 여전히 특정 종교에 편향적이고 인종적으로 일부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Santhiram 2021: 95). 앞서 언급했듯이,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인의 특별한 지위는 오늘날까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독립 과정에서 비말레이인 정치 지도자들도 동의 했다. 즉, 과거에 합의된 말레이인의 특별한 지위는 오늘날까지 역사교육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다문화사회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주의적 시각의 역사교육을 고집하기보다 객관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인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교육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화인 또는 인도계 이민자들의 역사적 업적도 비중 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역사교육은 개정을 거듭하며 개선되었지만, 내용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나왔다. 비말레이인들의 역사적 공로가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분명 증가했지만, 일부 생략되는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없어도 역사교육이 민족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모든 구성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을 보인다.

참고문헌

- 곽희정. 2017.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역사 교재 개발 방안.” 『다문화교육연구』 10(2): 1-24.
- 김동노. 2012. “민족주의의 다원화와 이념 갈등.” 『동방학지』 159: 367-420.
- 김종호. 2024. “이주민이 세운 국가의 역사 교과서 - 싱가포르 역사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로 보는 국가와 민족 만들기.” 『역사교육』 169: 73-112.
- 김한중. 2006. “다문화사회의 역사교육 -캐나다 BC 주의 경우.” 『역사교육연구』 4: 7-46.
- 박재영. 2016. “다문화 역사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과정과 내용구성 - 『한국사 속의 다문화』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2: 25-49.
- 방지원. 2016. “초등 역사교육에서 국가주의와 애국심 교육 - 제3차~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26: 47-86.
- 버츠, 로버트 프리먼. 김해성 역. 2007. 『민주시민의 도덕』. 파주: 나남.
- 변종현. 2020. “다문화 국가에서의 애국심의 의미와 내용.” 『윤리연구』 128: 239-260.
- 소병국. 2020. 『동남아시아사: 창의적인 수용과 융합의 2천년사』. 서울: 책과함께.
- 송승원. 2014.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적 국사서술의 성격과 역사수정 노력.” 『동남아연구』 23(3): 65-101.
- 양승윤. 2008. “말레이시아의 교육정책과 종족갈등.” 『동남아연구』 17(2): 91-121.
- 유혜자. 2006. “역사교육활동이 유아의 국가 정체성 형성과 역사적 사

- 고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규섭. 2023. “대만에서 역사교육과 국가정체성의 관계 : 청년세대의 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6(1): 79-100.
- 정상준. 1995.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43: 79-95.
- 허영훈. 2024.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인 주제의 실천적 다문화 역사학습의 실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 24(9): 477-500.
- 황인원·김형중·김지훈. 2012.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정치경제.” 『동남아시아연구』 22(3): 195-239.

- Anderson, Benedict. O'G.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Barton, Keith and Linda Levstik. 2004. *Teaching history for the common good*. New York: Routledge.
- Blackburn, Kevin and ZongLun Wu. 2019. *Decolonizing the History Curriculum in Malaysia and Singapore*. New York: Routledge.
- Cheah Boon Kheng. 2003. “Ethnicity, Politics and Textbook Controversies in Malaysia.” *American Asian Review* 21(4): 229-252.
- Kymlicka, Will. 2001. “Education for Citizenship.” Will Kymlicka (eds.).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Oxford, UK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91-316.
- Mahathir bin Mohamad. 1970. *The Malay dilemma*. Singapore : D. Moore for Asia Pacific Press.
- Malay Mail. 2016/12/31. “New KSSM, KSSR curriculum to be implemented in 2017, says education minister.”

- _____. 2022/06/22. “Senior Education Minister: No plans to review history as an SPM ‘must pass’ subject.”
- Malaya. 1956. *Report of the Education Committee 1956*. Kuala Lumpur: Government Press.
- Malaysia. 2013. *Executive Summary Malaysia Education Blueprint 2013-2025(Preschool to Post-Secondary Education)*. Kuala Lumpur: Ministry of Education.
- _____. 2016a. *Buku Teks Sejarah Tingkatan 1 KSSM*[Form 1 역사 교과서]. Kuala Lumpur: Ministry of Education.
- _____. 2016b. *Dokumen Standard Kurikulum dan Pentaksiran-Kurikulum Standard Sekolah Menengah-Sejarah Tingkatan 1*[Form 1 역사 교과 과정 및 평가 표준문서]. Kuala Lumpur: Ministry of Education.
- _____. 2017. *Buku Teks Sejarah Tingkatan 2 KSSM*[Form 2 역사 교과서]. Kuala Lumpur: Ministry of Education.
- _____. 2018. *Buku Teks Sejarah Tingkatan 3 KSSM*[Form 3 역사 교과서]. Kuala Lumpur: Ministry of Education.
- _____. 2019. *Buku Teks Sejarah Tingkatan 4 KSSM*[Form 4 역사 교과서]. Kuala Lumpur: Ministry of Education.
- _____. 2020. *Buku Teks Sejarah Tingkatan 5 KSSM*[Form 5 역사 교과서]. Kuala Lumpur: Ministry of Education.
- _____. 2023. *Statistical Yearbook Malaysia 2022*. Kuala Lumpur: Department of Statistics.
- Merry, Michael. S. 2009. “Patriotism, History and the Legitimate Aims of American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41(4): 378-98.
- Nathanson, Stephen. 2002. “Is patriotism like racism.” Igor Primoratz,

- Aleksandar Pavkovic (eds.). *Patriotism*. New York: Humanity Books. 113- 120.
- Nordin Hussin.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 Early History Textbooks in Malaysian Secondary Schools."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36(106): 451-461.
- Ong, Saw Lan. 2010. "Assessment profile of Malaysia: high-stakes external examinations dominate." *Assessment in Education: Principles, Policy & Practice* 17(1): 91-103.
- Nussbaum, Martha. 1994.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Boston Review* XIX (5), Oct/Nov, <http://bostonreview.net/BR19.5/nussbaum.php>. (검색일: 2025/01/10)
- Park, Robert Ezra·Burgess Ernest Watson. 1921.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Sociolog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Ranjit Singh Mahli. 2021. "History textbooks and divided societies: the Malaysian experience." *The Round Table - The Commonwealth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10(3): 407-408.
- Raz, Joseph. 1995. *Ethics in the Public Domain*. Oxford: Clarendon Press.
- Santhiram, Raman. 2021. *From Decolonization to Ethno-nationalism: A Study of Malaysia's School History Syllabuses and Textbooks 1905-2020*. Petaling Jaya: Strategic Information and Research Development Centre (SIRD).
- Smart, Andy & Jagannathan, Shanti. 2018. *Textbook Policies in Asia: Development, Publishing, Printing, Distribution, and Future Implications*.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 Soda, Naoki. 2001. "The Malay world in textbooks: The transmission of colonial knowledge in British Malaya." *Japanese Journal*

- of Southeast Asian Studies* 39(2): 188-234.
- Ting, Helen. 2013. "History Teaching and Education for Patriotic Citizenship in Malaysia." Joanna Woidon (eds.). *Cultural and Religious Diversity and its Implications for History*. Wroclaw: Wochenschau-Verlag. 103-116.
- _____. 2013. "The battle over the memory of the nation: Whose national history?." Mark Baildon, Kah Seng Loh, Ivy Maria Lim, Gül İnanç, Junaidah Jaffar (eds.). *Controversial History Education in Asian Contexts*. London: Routledge. 41-57.
- The Star. 2010/10/23. "History a must-pass subject for SPM from 2013 (Updated)."
- _____. 2012/01/20. "History Textbooks Filled With Factual Inaccuracies."
- _____. 2024/12/05. "Development of 2027 school curriculum includes history subject - Wong."
- VanSledright, Bruce. 2008. "Narratives of nation-state, historical knowledge, and school history education."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32(1): 109-146.
- Wong, Sook Wei. 2023. "The Japanese Occupation in Malaysian History Textbooks from 1978 to 2020." *Journal of Educational Media, Memory, and Society* 15(2): 23-44.

(2025.01.10. 투고, 2025.01.24. 심사, 2025.02.19. 게재 확정)

<Abstract>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Social Integration
in Malaysia through History Education:
Focused on the competition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assimilation

Young Mook CHO · Eun Sook SEO
(Dongguk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laysian history curriculum. As a multicultural country, Malaysia is composed of various ethnic groups such as Malay, Chinese, and Indian migrants, as well as dozens of ethnic minority communities. Malaysia aims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diversity acceptance. History education is also one of the main means for realising social integration in Malaysia, and aims to form the identity and social integration of students as 'Malaysian citizen'. The history subject deals with a wide range of human lives in time and space, and develops the ability to reflect on the lives of others to learn an attitude of respecting other cultures and traditions. However, history education in Malaysia has been controversial from the beginning. Malaysia became independent from the British Empire in 1957. Due to absence of education system, the content of history education still followed 'Europe-centered' colonial history until 1970s. Since 1978,

when the curriculum was revised, history education has been influenced by the Bumiputera Policy, which favours Malays, and the historical pain of Chinese and Indian migrants and the contribution of Malaysian development have been omitted from the curriculum. Since then, history education in Malaysia has reflected some of the criticism whenever the curriculum is revised and sought multicultural coexistence and national unity but the Malay supremacy still affects history education.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Malaysia's complete national unity through history education.

Key Words: Malaysi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y Education,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Identity

<부록> 2017-2021 개정 말레이시아 중등 과정 역사교육 교과 계획 학습 내용

학년	주제	목차
Form 1	우리(말레이시아)의 역사와 세계	<p>Chapter 1. 알아가기</p> <p>1.1. 역사의 의미</p> <p>1.2. 역사학자들에 의한 역사의 의미</p> <p>1.3. 역사에서 과거와 공간</p> <p>1.4. 역사의 출처</p> <p>1.5. 역사 연구</p> <p>1.6. 역사 해석</p> <p>1.7. 역사 공부의 중요성</p> <p>결론</p> <p>Chapter 2. 빙하기</p> <p>2.1. 우리의 세계</p> <p>2.2. 빙하기</p> <p>2.3. 빙하기 연대표</p> <p>2.4. 후기 홍적세의 특징</p> <p>2.5. 후기 빙하의 변화</p> <p>2.6. 동남아시아의 빙하기 변화와 영향</p> <p>결론</p> <p>Chapter 3. 선사시대</p> <p>3.1. 선사시대의 의미</p> <p>3.2. 세계 선사시대의 위치</p> <p>3.3. 선사시대 인간 삶의 특징</p> <p>3.4. 선사시대가 인류 삶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속성</p> <p>3.5. 말레이시아의 선사시대</p> <p>결론</p> <p>Chapter 4. 문명 알아가기</p> <p>4.1. 문명의 의미</p> <p>4.2. 문명의 개념</p> <p>4.3. 세계 초기 문명의 특징</p> <p>결론</p> <p>Chapter 5. 세계의 초기 문명</p> <p>5.1. 세계 4 대문명의 위치</p> <p>-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인더스, 황하</p> <p>5.2. 초기 문명의 공헌 비교</p> <p>결론</p> <p>Chapter 6. 그리스, 로마 문명의 부상</p> <p>6.1. 그리스 문명</p> <p>6.2. 그리스 문명에서 행정부의 부상</p> <p>6.3. 로마 문명</p>

		<p>6.4. 로마 문명에서 건축의 부상 결론</p> <p>Chapter 7. 인도, 중국 문명의 부상</p> <p>7.1. 인도 문명</p> <p>7.2. 중국 문명 결론</p> <p>Chapter 8. 이슬람 문명과 공헌</p> <p>8.1. 이슬람 전파 이전 아랍 사회의 배경</p> <p>8.2. 이슬람 문명의 부상 및 발전</p> <p>8.3. 지도자 무함마드의 특징</p> <p>8.4. 이슬람 문명의 세계 공헌</p> <p>8.5. 이슬람 문명의 건축 분야 공헌 결론</p>
Form 2	국가의 유산	<p>Chapter 1. 말레이 정부</p> <p>1.1. 말레이 세계의 개념</p> <p>1.2. 말레이 세계에서 정부의 존재</p> <p>1.3. 유명 말레이 왕국</p> <p>1.4. 말레이 왕국과 동시대의 해외 정부</p> <p>Chapter 2. 말레이 사회의 통치 시스템과 경제 활동</p> <p>2.1. 정부 시스템</p> <p>2.2. 경제 활동</p> <p>Chapter 3. 말레이 왕국의 사회문화</p> <p>3.1. 언어와 쓰기</p> <p>3.2. 문학</p> <p>3.3. 건축</p> <p>3.4. 사회 구조</p> <p>Chapter 4. 말레이 왕국의 종교 및 신앙</p> <p>4.1. 종교와 신앙</p> <p>4.2. 말레이 왕국의 유산</p> <p>Chapter 5. 말라카 술탄국</p> <p>5.1. 말라카 술탄국의 건국</p> <p>5.2. 말라카 술탄국의 영광</p> <p>5.3. 말라카 술탄국의 멸망</p> <p>Chapter 6. 조호 리아우 술탄국</p> <p>6.1. 조호 리아우 술탄국의 건국</p> <p>6.2. 조호 리아우 술탄국의 영광</p> <p>Chapter 7. 파항, 페락, 트렝가누, 슬랑오르 술탄국</p> <p>7.1. 파항, 페락, 트렝가누, 슬랑오르 술탄국의 건국</p> <p>7.2. 파항, 페락, 트렝가누, 슬랑오르 술탄국의 유산</p> <p>Chapter 8. 크다, 클란탄, 느그리 슴빌란, 프롤리스 정부</p> <p>8.1. 크다, 클란탄, 느그리 슴빌란, 프롤리스의 건국</p>

		<p>8.2. 크다, 클란탄, 느그리 슴빌란, 프를리스의 국제관계 Chapter 9. 크다, 클란탄, 느그리 슴빌란, 프를리스의 유산 9.1. 크다, 클란탄, 프를리스의 유산 9.2. 느그리 슴빌란의 고유 전통 Chapter 10. 사라왁과 사바 10.1. 말레이 세계의 사라왁과 사바 10.2. 현지 정부의 출현 10.3. 사라왁과 사바 사회의 경제 활동 10.4. 사라왁과 사바 부미푸트라 공동체의 고유성</p>
<p>Form 3</p>	<p>외세의 등장</p>	<p>Chapter 1. 서구 세력의 등장 1.1.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 1.2. 서구 세력의 말레이반도 등장 배경 1.3. 식민지 쟁탈을 위한 서구 세력 간 경쟁 1.4. 말레이반도 지배를 위한 서구 세력의 다양한 전략 Chapter 2. 해협 식민지 정부 2.1. 페낭, 싱가포르, 말라카에서 영국의 세력 확대 2.2. 1824년 런던 조약과 말레이 세계에 대한 영향 2.3. 해협 식민지의 형성 2.4. 해협 식민지 정부 Chapter 3. 말레이 연합주 정부 3.1. 페락, 슬랑오르, 느그리 슴빌란, 파항의 지하자원 3.2. 페락, 슬랑오르, 느그리 슴빌란, 파항에서 영국의 세력 확대 3.3. 말레이 연합주의 결성 3.4. 말레이 연합주 정부 Chapter 4. 비말레이 연합주 정부 4.1. 프를리스, 크다, 클란탄, 트렝가누, 조호의 술탄 4.2. 프를리스, 크다, 클란탄, 트렝가누에서 영국의 세력 확대 4.3. 조호에서 영국의 세력 확대 4.4. 말레이 연합주의 통치 시스템 Chapter 5. 사라왁과 사바의 서구 식민정부 5.1. 사라왁과 사바 현지 정부의 배경 5.2. 사라왁에서 브룩 왕조의 세력확대 5.3. 사바에서 영국 북보르네오 회사의 세력확대 5.4. 사라왁과 사바의 서구 형태 정부 Chapter 6. 경제와 사회에 대한 서구 식민정부의 영향 6.1. 서구 세력에 의한 현대식 경제도입 6.2. 식민 정부와 경제의 관계 6.3. 식민 정부의 말레이반도 경제적 영향 6.4. 식민 정부의 말레이반도 사회적 영향</p>

		<p>Chapter 7. 현지 저항 세력 7.1. 현지 저항 세력의 형성 및 목표 7.2. 현지 공동체에 대한 식민 정부의 영향 7.3. 식민 정부에 맞서는 현지 공동체의 저항 7.4. 현지 공동체에 대한 영향 Chapter 8. 서구의 압박과 말레이 술탄의 지혜 8.1. 서구의 움직임과 북부 말레이 주와 조호의 작전 8.2. 서구의 압박에 대한 말레이 술탄들의 행동 8.3. 현대화를 위한 말레이 통치자들의 노력 8.4. 서구의 압박에 대한 현지 정부의 역할 및 효과</p>
<p>Form 4</p>	<p>국가 건설</p>	<p>Chapter 1. 국가의 유산 1.1. 서구 세력의 등장 이전 국민국가의 배경 1.2. 말라카 술탄국의 특징 1.3. 행정 및 법률 시스템의 우수성 1.4. 정부와 국민의 역할 Chapter 2. 민족주의의 부상 2.1. 민족주의의 의미 2.2. 서구 민족주의의 발전 2.3. 아시아 민족주의의 발전 2.4. 동남아시아 민족주의의 발전 2.5.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인식 2.6. 민족주의 운동의 출현 요인 2.7. 민족주의의 발전 2.8. 민족주의 발전의 효과 Chapter 3. 세계 분쟁과 일본 점령기 3.1. 세계 대전 이전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3.2. 세계 대전의 배경 3.3. 2차 세계대전 3.4. 아시아 태평양에서 2차 세계 대전 3.5. 일본의 등장 요소 3.6. 일본 군정의 정책 3.7. 일본 점령에 대한 국민의 저항 3.8. 일본 점령하 민족주의 운동의 발전 3.9. 일본의 패망 Chapter 4. 영국의 귀환 및 권력 이양 시대 4.1. 영국 군정 4.2. 말라야 연합안의 구상 4.3. 말라야 연합안에 대한 현지의 반응 4.4. 영국 정부에 대한 사라왁의 항복 4.5. 항복에 대한 사라왁 현지인들의 반응 4.6. 영국 정부에 대한 사바의 항복</p>

		<p>4.7. 항복에 대한 사바 현지인들의 반응 Chapter 5. 말레이 연방 1948 5.1. 1948년 말라야 연방 설립 배경 5.2. 1948년 말라야 연방 설립의 요건 5.3. 1948년 말라야 연방의 특성 5.4. 1948년 말라야 연방 설립의 영향 Chapter 6. 공산주의의 위협과 비상 선언 6.1. 공산주의의 등장 6.2. 공산주의의 위협 6.3. 공산주의 위협 해결을 위한 노력 6.4. 비상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Chapter 7. 독립을 위한 노력 7.1. 독립 국가 개념의 배경 7.2. 인종 관계 위원회 7.3. 의회 제도 7.4. 국가 교육 제도 7.5. 정치 정당의 설립 Chapter 8. 선거 8.1. 말라야 연방 선거의 발전 8.2. 첫번째 총선 과정 8.3. 연방 입법 위원회 설립 8.4. 말라야 연방 초대 내각의 역할 Chapter 9. 말레이 연방 헌법 1957 9.1. 독립 협상 노력 9.2. 말라야 연방 헌법 위원회의 역할 9.3. 말라야 연방 독립 헌법 초안 작성 단계 9.4. 말라야 연방 협정 Chapter 10. 독립의 희망 10.1. 독립의 정의 10.2. 독립 선언 준비 10.3. 독립 선언의 순간 10.4. 독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0.5. 말라야 연방 주권 원칙</p>
<p>Form 5</p>	<p>말레이시아와 미래</p>	<p>Chapter 1. 국민 주권 1.1. 주권 개념 1.2. 주권 국가의 특성 1.3. 주권 국가 건설의 중요성 1.4. 주권 수호를 위한 조치 Chapter 2. 연방 헌법 2.1. 연방 헌법의 역사적 배경 2.2. 연방 헌법 초안 작성의 역사</p>

	<p>2.3. 연방 헌법의 주요 특징 2.4. 연방 헌법 개정 Chapter 3. 입헌 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 3.1. 입헌 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의 배경 3.2. 통치자 회의의 역사와 제도적 위치 3.3. 연방 헌법에서의 국왕 3.4. 민주적 실천과 권력 분립 3.5.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독특성 Chapter 4. 연방제 4.1. 우리나라 연방제의 배경 4.2.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력 4.3.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 4.4. 연방제 강화 요소 Chapter 5. 말레이시아의 결성 5.1. 말레이시아 구상 5.2. 말레이시아 결성을 위한 노력 5.3. 말레이시아 결성에 대한 현지 및 주변 국가 반응 5.4. 말레이시아 결성을 위한 단계 5.5. 1963년 7월 협정과 말레이시아 선언의 사건들 5.6. 대립과 해결을 위한 노력 Chapter 6. 말레이시아 결성에 대한 위협 6.1. 말레이시아 내부의 위협 6.2. 싱가포르의 분리 6.3. 공산 세력에 대한 대처 6.4. 개발과 경제 이슈 6.5. 민족 갈등의 비극 Chapter 7. 국가 번영 구축 7.1. 사회통합 7.2. 교육 정책 7.3. 말레이어와 언어의 통합 7.4. 문화 정책 7.5. 통합을 위한 스포츠 7.6. 국가 번영의 한 축인 Ruku Negara Chapter 8. 국가 번영 구축 8.1. 신경제정책 준비 8.2. 신경제정책 도입 8.3. 국가 개발 정책 준비 8.4. 국가 개발 정책 도입 8.5. 신경제정책과 국가 개발 정책의 성과 Chapter 9. 말레이시아의 외교 정책 9.1. 외교 정책의 배경</p>
--	---

		<p>9.2. 외교 정책 수립의 기반 9.3. 국제연합에서의 말레이시아 9.4. 영연방에서의 말레이시아 9.5. 외교 정책 강화를 위한 도전 9.6. 아세안에서의 말레이시아 9.7. 비동맹운동에서의 말레이시아 9.8. 이슬람 협력 기구에서의 말레이시아 Chapter 10. 세계 경제 속 말레이시아의 우수성 10.1. 현대 글로벌 이슈에서의 말레이시아 10.2. 국제경제에서 말레이시아의 역할 10.3. 인도주의적 문제와 안보에 대한 참여 10.4. 글로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10.5. 미래를 향한 말레이시아의 비전</p>
--	--	---

